

기도는 대화다.
기도는 곧 휴거의 길이다.

작성일 : 2012년 4월 23일 (월)
작성자 : 김영광

(생중계 새벽예배 말씀 이후 기도예 시간 주님을 불렀습니다. 주님께서 제 앞에 계심이 느껴졌고, 얼마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감동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 주님께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)

* 성자 주님 말씀 *

기도하는 나의 섭리여
진정 기도하는 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며
기도함으로 나에게 사랑 주니
내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구나
사랑하는 섭리 모두여
너의 신랑 성자 나 예수
진정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에
오늘도 이 글로써 너희에게 나타난다.
말씀은 곧 나니, 진정 나를 맞아라.

사랑아.
이때는 모두 기도해야 한다.
아직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
기도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라.
평상시 기도처럼 그냥 기도하고 만다.
이 때 기도는 다른 때와는 다르다.
지금은 내가 다시 오기 직전의 때이다.
진실로 나를 맞지 아니하면
내 재림 때 나를 맞을 수 없다.

너희는 이때를 깨달아라.
지금은 오직 나 성자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때이다.
재림은 영인 나를 맞는 것이다.
그러니 그냥으로는 나를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.
진정 지금 이 때 나를 맞고 살아야
그 날에도 성자인 나 예수를 깨닫고 맞을 수 있는 것이다.
기도는 너희 수준대로 너희 기존 습관대로 행치 말고

내 수준, 나의 차원으로 높이
진정, 나와 만나 나와 대화하자.

(주님.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?)

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.
나와 교통하고 소통하여라.
그러므로 이 시대를 깨닫고,
나 예수를 깨닫고,
너희 선생을 깨닫고,
말씀을 온전히 깨달아
진정 마지막 신부 단장을 하여라.

심정으로 나 예수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.
너희가 가지고 싶어도, 알고 싶어도,
가질 수도, 너희 스스로는 알 수도 없는 단계가
심정의 단계이다.
이론, 혹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
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으로 아는 단계가
심정의 단계다.
그러니 그 세계를 알려면 나와 소통해야지.....
내가 하는 이야길 들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.

사랑하는 자야
휴거는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일체 되는 것이요.
나의 생각과 네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요.
나의 육신이 되어 네 행실이 나와 같아지는 것이다.
나와 같아지려면, 네 마음이 진정 나와 하나 되고
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, 내 심정을
네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.

성령을 받아라.
이 때 부어 주는 마지막 나의 마음을
진정 받고 나와 일체 되어라.

이 때 기도는 나와 대화가 핵심이다.
섭리 모두는 나와 대화해야 한다.
정말 내가 대화해야 한다는 말을 깨달아야지.....
지금 너의 방식, 네 생각 다 버려라.
기존의 기도 습관도 다 버려라.
나와 대화하자.
'기도가 휴거의 비밀이다.' 했던 말을 깨달아라.
선생도 나와 대화함으로
이 시대 역사를 발견하고, 그 문을 연 자가 되었다.

너의 신랑, 네가 모시고 살 자는
바로 나! 성자 예수니라.
너희는 내 일만 하고 내게 보고 하는 종이 아니요,
나에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아들이 아
니요,
진정 이 역사 함께 행하는 동반자요,
영원히 함께할 나의 반려자이니라.

이 때 제발 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.
지금 이 때 주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
마지막 사랑이요,
내 마지막의 몸부림이니라.
오직 널 위해 너와 함께 살기 위해…….

(주님. 그럼 우리가 이 때 기도함으로 맺어야 할
열매는 무엇입니까?)

첫째, 성자 나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며
나의 육 된 선생을 절대 사랑해 주는 것이다.
위로해 주고,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.

둘째, 네 마음, 정신, 생각이
진정 나의 생각과 정신,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.
그 표상이 곧 선생임을 진정 깨닫고 그를 닮아라.

셋째, 회개하라.
정결하고, 깨끗이 자기를 만들어라.
천국은 완전한 세계, 흠도 없는 세계이니
진정 회개하고
다신 죄 짓지 마라.

넷째, 행함의 정신, 도전 정신, 될 때까지 정신이다.
안 된다고 포기치 말라.
나와 대화가 안 된다고, 심정을 못 받았다고,
실천이 잘 안 된다고 포기치 말라.
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.

다섯째, 절대 말씀 중심의 삶이다.
말씀은 곧 나 예수니라.
말씀을 대함이 곧 나를 대함이요,
나를 대한 태도이며,
내가 말씀을 행함은 곧 순종을 뜻함이라.
그러니 절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.
선생의 수고를 더는 일이며

이제 선생의 십자가를 내리는 길이니라.

여섯째, 선생과 소통이다.
선생과 소통은 곧 선생의 잔을 같이 마시는 것이다.
지금까지 내가 세운 두 증인이
선생과 쓴 잔을 함께했지만
이제 너희가 깨달음으로 이 잔을 같이 마셔라.
선생이 간 길을 가라.
부흥강사가 간 길을 가라.
수련원장이 간 길을 가라.

일곱째, 나 예수의 신부가 되어라.
나 예수는 그저 네가 마음에만 담아 두는 신이 아니
다.

네 생각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다.
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네 옆에 언제나 함께하는
살아 있는 전능자다.
나를 제대로 모시고 섬겨라.
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.

여덟째, 나 예수와 너희 선생을
재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라.
실로 놀라워 오직 네 인생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느
니라.
깨달은 자! 오직 열매 맺은 자만 알게 되리라.

아홉째, 형제를 사랑하라.
네 형제가 그저 형제로 보이느냐.
엄연히 나의 육이며, 내 신부요,
내가 택해 이 섭리로 데려온 어린 양이니라.
어찌 함부로 대하고
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.
그를 함부로 대한 자 나를 함부로 대한 자요.
그를 아프게 한 자, 나를 아프게 한 자니
진실로 회개하길 바란다.

이것 외에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느니라.
이 모든 것은 나와 대화함으로 가능케 되니
진정 기도가 휴거의 비밀이라 일컫는 것이니라.

기도는 사랑이다.
나와 대화의 근본은 날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
출발함을 진정 깨닫길 바란다.

나와 통하는 길! 오직 사랑!
진실한 사랑이니라.

(주님.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?)

진실한 사랑은 곧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며,
그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행하는 것이니라.
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.

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
너의 신랑 성자 주니라.